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초기 가뭄 대책 '총력'

윤 현대성 기자 | 승인 2026.08.03 15:03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전병칠)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필요시 간이급수대, 물차, 양수기 등을 활용한 비상급수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영농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병칠 본부장은 “초기 가뭄 단계부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대응을 강화해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농업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삼다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성 기자